



광남일보



전남신보-경남신보, 고향사랑 상호 기부
2년 연속...“지역 발전·상생가치 실현”

7



해남,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선도모델 조성
전남대와 농어업 성장모델 구축 협약

8



강진, 글로벌 인재 육성 거점도시 도약
강진원 군수 “미래 설계 전략적 선택”

10



보치아 강선희, 월드 보치아컵 ‘금메달’
BC3 개인전 결승서 일본 선수 4-2 제압

12

조간 제7865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윤력 5월 23일)



이재명 정부 어젠다 광주·전남 현안 담자

해상풍력·태양광 발전 ‘드라이브’ 전남 ‘에너지 대전환’ 메카로 도약

〈1〉신재생에너지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운영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6일 출범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광주와 전남지역 현안사업들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국립전남의대 신설 등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안한 사업들은 이 대통령의 지역공약과 상당 부분 겹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들 계획이 단순한 약속을 넘어 실제 정책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꼭 포함돼야 할 광주·전남 현안사업을 알아본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전남도가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풍부한 자원에 기반한 전남형 에너지 전략은 이재명 정부가 내건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 기조와 맞물리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대통령 후보 시절 전남을 직접 찾아 약속한 주요 에너지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에너지 공약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RE100 실현’이다. 이는 전남이 강점을 가진 해상풍력·태양광 산업과 밀접히 맞닿아 있으며, 해당 분야를 이끌 정부 전남 부처인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공식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전남의 전략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정책 기능을 독립시켜,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다룰 ‘기후에너지부’

친환경·청정에너지 공식화
잠재량 전국 1위 ‘최적지’

RE100 산업 실현 본격화
‘에너지 자립형 도시’ 기대



를 신선했던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에 발맞춰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며 관련 부처 유치와 협력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은 이미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 태양광 발전설비의 약 20%, 풍력발전의 약 45%를 차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1176GW로 전국(7333GW)의 16%를 차지해 전국 1위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신안 해역에서 추진 중인 8.2G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민간자본 48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35년까지 총 26개 단지로 조성되며, 1단지는 2024년 말 시운전을 시작해 2025년 상업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태양광 분야에서도 전남은 강세를 보

인다. 전국에서 가장 긴 일조시간과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농사와 병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구조다.

RE100 산업단지 조성도 본격화되고 있다. 목포 등지에는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는 기업을 위한 전용 국가산단이 추진 중이며, 해남 솔라시도에는 AI·에너지를 융합한 데이터센터와 첨단기업 유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에너지 자립형 미래도시 조성’ 비전과도 정확히 궤를 같이 한다.

전남도는 2021년부터 ‘에너지 대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RE100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 △주민참여형 발전모델 구축 등 세 가지 전략을 설정해 실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기후에너지부와 같은 전문 부처 출범을 계기로 지역 제안사업이 실질적인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형 재생에너지 모델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전환과 맞물려 현실화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은 지금, ‘공약에서 정책으로, 정책에서 실행으로’ 나아가는 실질적 전환의 중심에 서 있다.

김영록 지사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전남 주요 사업이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전남발전을 견인할 절호의 기회가 마련됐다”며 “전남도의 핵심 현안이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돼 전남은 물론 국가 발전까지도 이끌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 한 호텔에서 열린 캐나다 앨버타 주수상 내외 주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초청국 리셉션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화제...관세 협상도 관심사

李 대통령 G7리셉션 참석...남아공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트럼프 만남 ‘중동 약재’에 무산...오늘 한일 정상회담 예정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일정 첫날인 16일(현지시간) 오후 다니엘 스미스 캐나다 앨버타주수상이 주최하는 환영 리셉션에 참석했다.

G7 초청국 정상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리셉션에서는 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로 관세 협상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을 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나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그런 주제의 얘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

력도 리셉션에서 또 다른 주제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 사안에 관심이 많더라.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는 관심을 갖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도 여기에 관심을 보였다. 남아공 역시 우리와 비슷하게 민주화를 겪은 공통점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며 “대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고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드레스 코드가 전통의상 혹은 정장이었다”며 “김혜경 여사는 연노란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 등 전통 한복 의상을 입고 참석을 했

고, 사진 촬영 요구를 많이 받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전보장장은 이날 캐나다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원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에는 이런 일들이 간간히 있긴 하다”며 “아마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위 안보실장은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 같은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설명했다.

▶2면에 계속
연합뉴스

‘일찍 찾아온 장마’ 광주·전남 20일부터 시작

광주·전남 지역에 오는 20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

1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오후~20일 오전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중부와 남부지역이 장마철에 접어들겠다.

예보대로 장마가 시작될 경우 평년(6월 23일)보다 3일 정도 빠르다.

광주·전남은 20일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고,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서 남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21일에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정체전선 위치 등에 따라 강수 시점과 집중 지역이 달라질 수 있다.

22일~24일은 정체전선이 제주도~남해안에 머물면서 광주·전남에도 비가 내리겠다. 이후 정체전선은 북상할 가능성이 있다. 강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 습도가 높아 무덥겠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광주 살아? 이 앱 It# 들어봤어?

맛집·카페·핫플 광주의 다양한 가게 한눈에

잇샵으로 핫플 추천, 쿠폰으로 혜택받자!

모두의 쿠폰, 잇샵 It#

